

임직원 회의 개최

AI 방역개선 대책 및 지속가능한 가금산업 발전 대책에 대해 중점 논의



본회(회장 이홍재)는 지난 1일 본회 회의실에서 회장단을 비롯한 임직원 회의를 개최하고 AI 방역개선 대책 및 지속가능한 가금산업 발전 대책에 대해 중점 논의 했다. 지난 4월 정부에서 발표한 AI 방역개선 대책에 농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문제점을 지적하고 생산기반 확충, 위생안전성 강화, 유통소비 체계 확립 등 지속가능한 가금산업 발전 대책에 대해 논의 하였다.

각 치킨프랜차이즈업체에 치킨가격 인하 요청

닭고기 소비회복과 양계산업 회생 동참 요청

본회는 지난 14일 작년 11월부터 이어진 고병원성 AI로 인하여 양계산업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난 2일 군산에서 AI가 재발생한후로 소비가 20% 이상 급감함에 따라 닭고기 소비회복과 양계산업 회생을 위해 동참해 줄것을 치킨프랜차이즈업체에 공식 요청하였다. AI 재발후 산지 닭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생산비 이하인 kg당 1,200원대(병아리가격 1,000원)를 형성하고 있어 농가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프랜차이즈업체는 지난 5월 치킨가격을 올렸으며 6월 추가적인 가격 인상을 단행하면서 양계산업에 심각한 위협을 불러올 것이

라 판단됨에 따라 닭고기소비를 늘려 고사에 빠진 양계산업을 살리고 장기적으로 치킨외식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요청 하였다.

국방부에 계란·닭고기 급식 확대 요청

계란·닭고기 소비촉진과 산업 회복 위해 급식량 확대 요청

본회는 지난 16일 고병원성 AI로 양계산업에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계란·닭고기 소비촉진과 산업 회복 위해 급식량 확대 요청을 국방부에 요청하였다. 최근 5년간 계란·닭고기 연간 평균 군납물량을 조사한 결과 계란은 6,249톤, 닭고기는 10,794톤으로 국군장병 1인당 연간 소비량은 계란 200개, 닭고기 17.9kg으로 대한민국 평균(2016년 계란 272개, 닭고기 19.8kg 소비) 소비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채란위원회

계란 거점 인수도장설치 및 운영계획 논의

본회 채란위원회(위원장 남기훈)는 지난 15일 대전에서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계란 운반 차량 등이 여러 농장을 방문해 농장간 AI 전파 요인으로 지목되는 바 AI 특별방역기간 중에 기존유통시설을 활용하여 한시적으로 계란 거점 인수도장 설치 및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태국산 계란 수입대책 방안과 AI 백신 관련대책 추진사항 논의가 있었다.

육계위원회

산업 현안 논의

본회 육계위원회(위원장 오세진)는 지난 21일 본



회 회의실에서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사육기반 구축, 질병관리 효율화, 계열화사업 균형 발전, 산업통계 정비 및 산업 육성 연구개발 확대, 이력관리제 도입, 친환경축산 활성화, 소비자 안심시스템 구축, 유통구조 개선 등 가금산업발전방안을 위해 논의가 이루어 졌다.

직원 인사 발령 국장 인사 단행

본회는 지난 1일 경영정책국 김재홍 부장을 국장으로 승진 인사 발령 하였다. 김재홍 국장은 종계·부화, 산란계, 육계, 자조금사업 등 경영정책국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 김재홍 국장

지회 · 지부 소식

경기도지회 지회장 이취임식

본회 경기도지회(지회장 송복근)는 지난 5월 29일 경기도 양주소재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웨딩홀에서 지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취임식에서 경



기도지회 신임 집행부 인사가 있었으며 송복근 지회장은 “산업발전과 지회단합을 위해 노력하며 양계인들의 권익향상에 힘쓰겠다”고 했다.



▲ 송복근 지회장

지회장 : 송복근

채란분과위원장 : 하병훈

육계분과위원장 : 윤세영 감사 : 민균홍, 김창식
종계부화분과위원장 : 윤정로 사무국장 : 김진복

제주도지회 신임 지회장 선출

본회 제주도지회(지회장 김해규) 지난 5월 4일 지회 사무실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지회장 선출을 진행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김해규 성진농장 대표가 지회장에 선출되었다. 신임 김해규 지회장은 “산업과 지회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농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 김해규 지회장

충주육계지부 정기총회 및 지부장 이취임식

본회 충주육계지부(지부장 안영식) 지난 5월 29일 충북 충주소재 파라다이스 웨딩홀에서 정기총회 및



지부장 이취임식을 진행했다. 이날 신임 안영석 지부장은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AI 발생으로 회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회원 모두가 하나가 돼 역경을 함께 이겨 나가자”고 했으며 “충주육계지부 발전과 회원 단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안영석 지부장



회 사무실에서 2017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6년도 사업추진 실적 보고가 있었으며 2017년 사업계획(안) 등이 의결되었다. 한편, 김양길 지회장은 “작년 한해 양계산업에 어려움이 많았던 시간이었다.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이 남아 2017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부여육계지부

신임 지부장에 김오식 대표 선임

본회 부여육계지부(지부장 김오식) 지난 5월 23일 지부 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지부장에 김오식 계림농장 대표를 선임하였으며 신임 임원진을 구성하였다.



▲ 김오식 지부장

지부장 : 김오식

감사 : 권병열, 김영환

부지부장 : 조양연, 방진우

사무국장 : 배동원

재무 : 박승순

총무 : 김명석

광주전남도지회

2017년 정기총회 개최

본회 광주전남도지회(김양길)는 지난 5월 26일 지

전북도지회

2017년 정기총회 개최



본회 전북도지회(지회장 박광식)는 지난 5월 31일 전북 김제에서 2017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6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회계보고가 있었으며 2017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등이 의결되었다. 올해 중점 사업계획으로는 AI 방역 개선 대책에 포함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전북 도청과 함께 가축분뇨처리사업, 동물사체처리기사업, 면역증강사업 등 농가경영 개선 및 소득 증대를 위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